

韓國 석유산업과 油公

세계 일류의 종합에너지. 종합화학기업을 향해 준비하는 油公



李 彰 圭

(油公 업무 1 과장)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시행과 함께 탄생하여 우리나라가 오늘날 공업화 성숙 단계에 진입할 때까지 국가의 주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국민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油公이 지난 10월 13일로 창립 27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석유 부문 위주의 사업에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여 2000년대 세계일류의 종합에너지·종합화학기업을 향해 준비하는 유공의 역사를 되돌아 본다.

I. 油公 설립 이전 한국의 석유사정

일반적으로 근대 석유산업의 기원은 美國의 에드윈 드레이크가 펜실베니아주 오일크리크에서 하루 30배럴을 생산하는 유전개발에 성공한 1859년으로 보고 있다.

드레이크의 유전개발 성공 이후 석유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져 美國 각 주에서 새로운 유전이 계속 발견되었으며, 1861년에는 미국산 석유가 처음으로 유럽에 수출되게 되었다. 또한 1870년대에는 오늘날 국제메이저들의 모체가 된 근대적인 석유회사들이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후 100여년 간 石油은 20세기 산업문명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石油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대략 1880년대로 알려져 있다. 개화기 서양문물의 하나로 유입된 石油은 주로 등화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처음에는 일부 특수계층에 의해서만 사용되었다.

石油가 일반 서민에게 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日帝시대로 미국산, 러시아산, 일본산 석유가 수입되었으며 미국계 스탠더드 석유회사의 '솔포' 석유가 시장을 석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920년대 우리나라 石油소비량은 연간 약 1,600천배럴로서 현재 소비규모의 약 0.6%에 불과한 수준이었으며, 지금으로 치자면 VLCC 1척 분의 석유를 가지고 1년 내내 온 국민이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당시 석유가격은 엄청나게 비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石油 1홉을 사자면 쌀 2되가 소요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현재 시세로 환산해 보면, 등유 1리터의 가격이 쌀 11되 즉, 10,000원 가량으로 현재 가격 186원에 비해 50배 이상이나 비쌌다는 결론이다. 당시 원유가격이 배럴당 1달러 미만인 점을 감안할 경우, 美國, 日本 등의 석유자본들이 이땅에서

엄청난 폭리를 거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石油사용이 계속 확대됨에 따라 1935년 日帝는 元山에 우리나라 최초의 정유공장을 건설하였다. 조선석유주식회사의 元山 정유공장은 연간 40만톤(일당 약 8천배럴)의 원유처리능력을 보유한 소규모 간이공장이었으나, 우리나라 석유산업의 효시가 된 공장이었다.

이 공장은 일제의 전략적인 필요에 의해 1944년 蔚山지방으로 시설을 이전시키던 중 8·15해방을 맞이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8·15해방 후 국내 石油수급은 미군정청에서 담당하였으며, 정부수립 이후 1949년 1월 대한석유저장주식회사(KOSCO)가 설립되어 石油의 저장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판매는 스텐더드, 셸, 칼텍스 등 미국계 3개 석유회사가 담당하였다. 즉, 당시는 외환사정등에 따라 석유제품의 수급 및 유통과정이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던 시대로 대한석유저장주식회사가 石油 완제품을 수입, 저장하고 정부의 지시에 따라 3社 메이저가 산하의 각 대리점을 통해 시도별로 석유제품을 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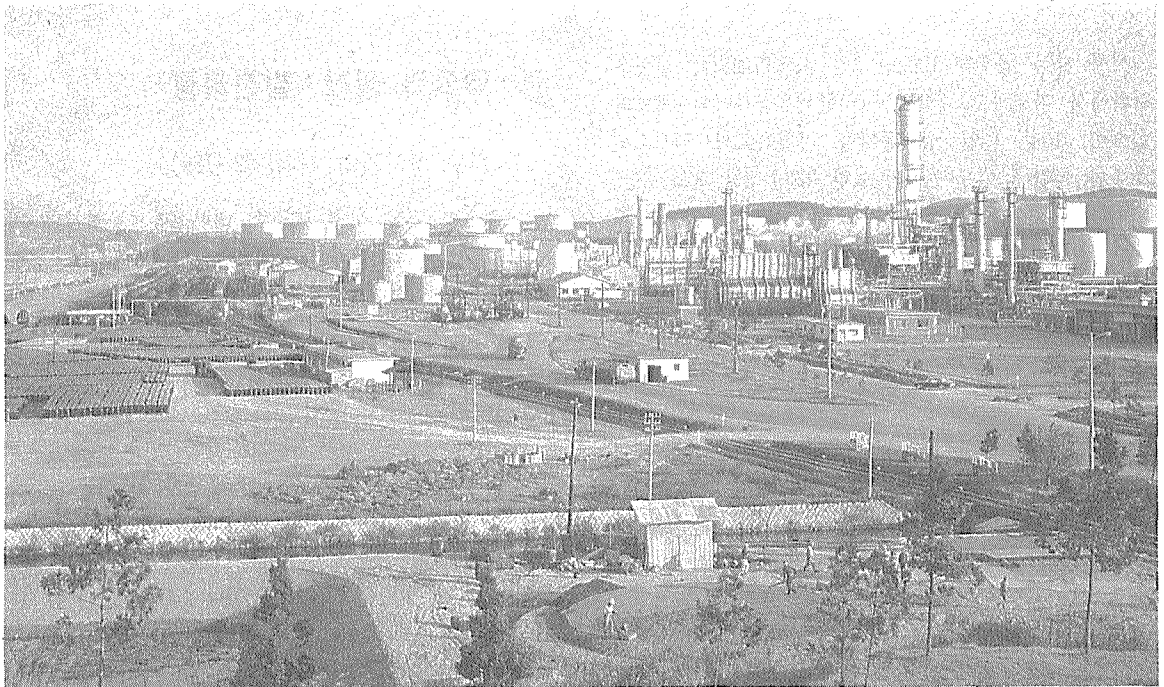
급·판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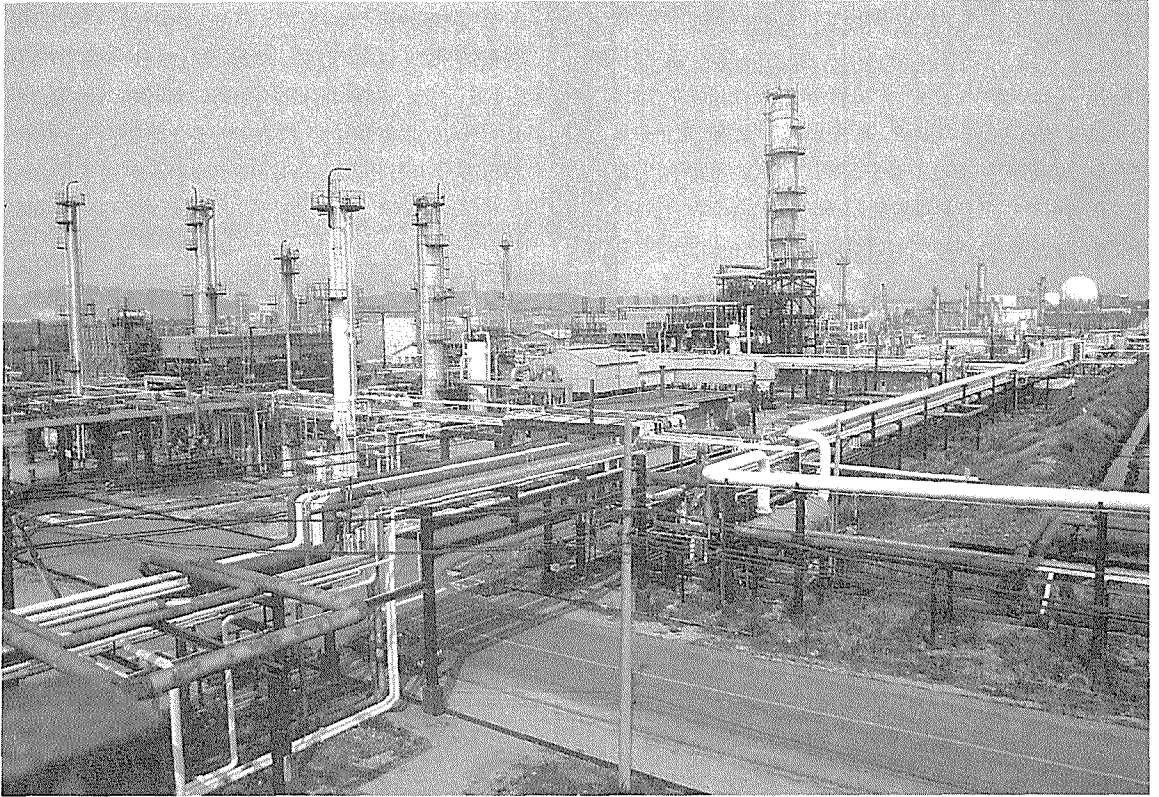
이같이 국내 石油수요를 전량 미국에서 수입함에 따라 정유공장을 건설하려는 시도도 여러번 있었다. 즉 1949년에는 元山에서 이전해온 정유설비를 복구하여 조업단계에까지 이르렀으나, 6·25동란의 발발로 무산되었으며, 1954년 다시 정유공장 보수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한편, 1958년에는 민간인들에 의한 정유공장추진위원회가 발족되고 이듬해 한국석유주식회사까지 설립하였으나, 당시의 외환사정등에 따라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II. 油公의 설립

1962년 정부는 경제자립에 의한 국력배양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실시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石油에너지의 안정된 공급 없이는 이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으로서, 또한 수입대체산업의 핵심산업으로서 정유공장 건설계획을 최우선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초창기의 蔚山정유공장 전경





▲최근의 蔚山 콤플렉스 전경

이에 따라 정부는 1962년 1월 大韓石油公社 설립을 각의에서 의결하고, 7월에는 대한석유공사법이 제정되었으며, 10월 13일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역사적인 油公의 창립이 이루어졌다. 또한 '63년 3월 일당 3만5천배럴의 공장건설에 착수하여 동년 12월에 준공을 하였으며, 약 45일간의 시험가동을 거쳐 1964년 4월 1일 정상가동에 들어감으로써 역사적인 석유제품의 국내 첫 생산이 이루어졌다.

이같은 정유공장의 본격가동으로 값비싼 미국계 석유제품수입을 대체하여 외화절약효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石油를 담보로 한 美國측의 영향력도 축소시켰으며, 공업화를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우리나라가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또한 정유과정에서 생성되는 석유화학 원료 및 부산물을 이용한 석유화학산업의 기반도 구축하여, 정유공장은 1960년대 우리나라 경제건설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불리워졌다.

Ⅲ. 油公의 성장 · 발전과정

1. 정부 투자기업 시기('62~'69)

정유공장 가동 이후 油公은 대한석유저장회사의 지방 정유시설을 인수하여 저유소로 개편하였으며, 기존 35개 대리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LPG, 아스팔트 등 특수제품 판매를 위해 17개소의 특약점을 새로 개설하는등 판매조직 및 유통구조를 정비하여 본격적인 국내 석유판매에 돌입하였다.

한편, 경제개발계획의 시행에 따른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국내 석유류 소비는 급속히 증가되어 1964년 울산정유공장의 가동 이후 1969년까지 국내 석유소비는 연평균 48%라는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1963년 국내에너지 사용량 중 10%에 불과했던 石油소비는 1969년에는 39%로 높아져 처음으로 석탄을 누르고 국내 에너지源 중 가장 많은 소비량

을 기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유공장의 100% 가동으로도 늘어나는 국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油公은 초기에 시설 확장공사에 착수하여 1967년에는 제1정유시설을 개조하여 시설 규모를 하루 5만5천배럴로 늘렸으며, 1968년에는 하루 6만배럴의 제2정유시설을 가동시켜 전체 정제능력은 115,000BPSD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1968년 12월에는 하루 550배럴의 윤활유 배합 공장을 완공, 가동하여 그때까지 수입에만 의존하였던 윤활유제품을 국산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60년대 油公의 정부투자기업시기는 油公이 국내 석유류 공급을 100% 책임지던 시대로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인 면에서도 재무구조의 안정과 확고한 경영기반을 이룩하였으며, 국가기간 산업체로서 초기 경제성장의 원동력 역할을 수행한 시기라 할 수 있다.

2. 외국인 투자기업 시기('70~'80)

정부가 제2차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석유화학공업을 중점 육성키로 하고 1967년 油公을 그 실수요자로 선정함에 따라, 油公은 국내 최초로 석유화학 공장건설에 착수하여 연산 216,000톤의 방향족 추출공장을 '70년 5월에 완공 가동시켰으며, 연산 100,000톤의 나프타 분해센터는 '73년 3월에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석유화학산업은 현대산업의 미술사로 불리우는 산업으로서 관련산업 및 국민경제에도 파급효과가 엄청나 동 석유화학공장의 완공을 계기로 유공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석유화학 공장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국내자본만으로는 조달이 곤란하여, 정부는 油公의 경영권을 '70년 6월 美國의 걸프에 이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걸프는 1980년 油公에서 철수할 때까지 약 10년간 油公의 경영권을 갖게 되었다.

걸프의 경영권 인수로 油公은 종전의 국영기업체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게 되었으며, 자금조달능력이 신장되어 석유화학사업에의 진출과 하루 6만배럴의 제3정유시설 건설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국제 메이저의 선진경영관리기업을 폭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油公의 경영권이 외국 메이저에게 넘어가게 됨으로써 당시 이미 외국 메이저에 의해 사실상 운영되고 있던 타정유사들과 같이 국내 정유산업은 모두 메이저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어,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석유생산능력 확보라는 면에서 한걸음 후퇴하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제2정유공장인 湖南精油의 석유산업 참여와 함께 곧이어 京仁에너지도 참여하여 석유산업에 있어서도 본격적인 경쟁시대로 돌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70년대에는 두차례에 걸친 석유위기가 있었던 시대로 원유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경제는 석유위기에 따라 큰 홍역을 치루었다. 이같은 석유위기에 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산업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한 것은 이 시기의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3. 민간 투자기업 시기('81~현재)

油公은 창립직후인 1963년 油公에 25%의 자본참여를 하고, 1970년 지분율을 50%로 높여 경영권을 갖고 있었던 미국의 걸프는 경영권 인수 당시 계약조건에 의해 1980년 油公에서 철수하게 되었다. 걸프의 철수에 따라 정부는 油公을 민영화하기로 결정하고, 민간종합상사로서는 최초로 산유국과의 직접거래를 통해 원유확보에 성공한 鮮京에게 유공의 경영권을 인수시켰다.

▼석유제품 저장탱크



이에 따라 油公은 국내 정유사 중 최초로 외국 메이저의 지배에서 벗어나 순수 민족자본기업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었으며, 민간기업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건실한 경영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그 동안의 석유부문 일변도 경영에서 사업영역을 다각화하여 종합에너지 및 종합화학기업을 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영화 이후 유공은 상류부문 진출사업으로 국내 정유사로는 처음으로 '83년 해외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하여, '84년 北예멘에서 양질의 유전개발에 성공하여 '88년 1월 20일에는 동 유전에서 생산된 35만배럴의 원유를 국내에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89년 6월에는 에콰도르에서 또 다시 유전개발에 성공하는 개가를 올렸다.

또한 하류부문 진출사업으로 PO/SM, PE/PP, P-X 제조시설 등을 건설하고 있어 종합화학회사로서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에너지사업의 다변화를 위해 '85년 LPG를 수

입·판매하는 油公가스를 설립하였으며, 도시가스사업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또한 대체에너지 부문에는 '87년 12월 CWF(Coal Water Fuel) 실증공장을 완공하였으며, 이에 앞서 '87년 6월부터는 유연탄 수입판매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84년 4월 蔚山연구소를 설립·운영하고 현재 大德종합연구소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등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내 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82년 油公 프로축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외국인 투자기업시에는 소홀했던 사무환경 및 종업원의 복리후생제도를 크게 확충하여 국내 최고의 근무환경을 조성해 놓고 있다.

이같이 油公의 민영화는 그 동안의 석유일변도 경영에서 종합에너지 및 종합화학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IV. 油公의 사업현황

1. 석유사업

28만 BPSD(공칭)의 원유정제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석유사업은 연간 104백만배럴의 석유제품판매를 기록하여 국내 석유수요의 45%를 공급함으로써 업계 선두기업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향후 국내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91년 완공을 목표로 15만B/D의 제4정유시설 및 3만B/D의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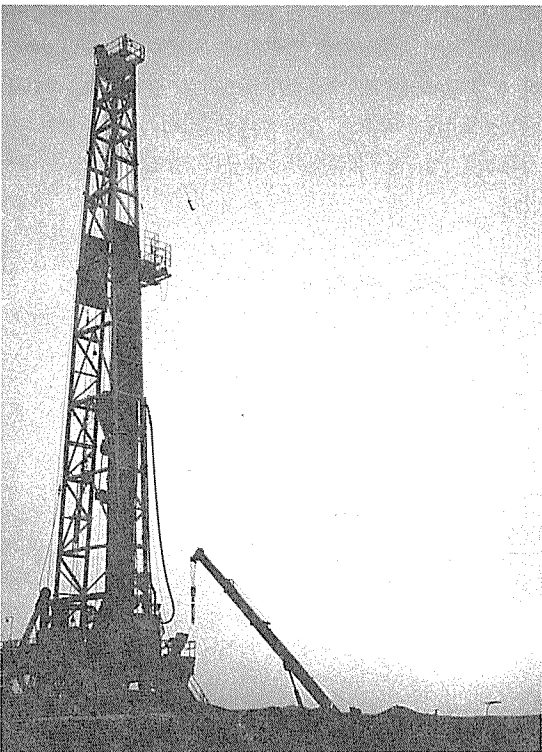
2. 석유개발사업

美國의 헛트 및 엑슨社와 공동으로 참여중인 北예멘 마리브광구에서 유전개발에 성공한 이후, 에콰도르의 B-12광구에서도 유전개발에 성공하여 22천B/D의 원유를 국내에 도입함으로써 油公 소요원유의 7.4%를 개발원유로 충당하고 있다. 수단, 말레이시아 등 7개 해외광구에 대한 탐사활동을 계속 중이며, 조만간 좋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3. 화학사업

연산 155천톤의 에틸렌 제조시설 및 758천톤의 BTX

▼北예멘 마리브광구의 유전시추현장





▲88년 1월 20일 北예멘 마리브광구에서 생산한 35만배럴의 원유를 싣고 울산항에 입항한 Yukong Winner호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화학사업은 생산시설의 최대조업 및 생산제품의 전량판매를 실현중이며,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연산 400천톤의 신규 에틸렌 제조시설을 건설중이다.

한편, 화학사업의 수직계열화를 위하여 PO/SM, PE/PP, P-X 제조시설 등을 금년과 내년 중에 각각 완공·가동시킬 예정이다.

4. 유회유사업

2천B/D의 유회유 배합시설 및 연산 3천톤의 그리스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유회유 수요의 22%를 공급하여 업계 선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정부로부터 4천B/D의 유회유 공장건설을 허가받아 '92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첨가제 제조시설 건설도 검토중이다.

5. 석탄사업

'87년 유연탄 수입판매 사업을 개시한 이래 연 40만톤을 수입·공급하고 있으며,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외 유연탄광개발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중이다.

'87년에 준공한 CWF(석탄·물 혼합연료) 실증공장의 운전과 석탄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다양한 기술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

V. 세계 일류의 종합에너지·종합화학기업을 향해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 油公은 국내 에너지 및 화학산업 분야에서 각각 선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지만, 석유자원의 유한성이라는 근본적인 제약조건하에서 현재의 국내 선두에 만족치 않고 미래의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국내 선두는 물론 세계 일류의 종합에너지 및 종합화학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00년대 油公의 기업목표는 석유개발에서부터 정제·판매에 이르기까지 석유사업의 상·하류부문을 수직적으로 통합하고 국제교역능력을 갖춘 강력한 석유회사로서, 석탄, 가스 및 전력 등 기타 에너지분야에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세계수준의 종합에너지회사와 석유화학 기초유분에서부터 관련제품에 이르기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룩하고, 기술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첨단 정밀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세계수준의 종합화학회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油公의 기업목표가 달성되어 2000년대에 油公이 Exxon, Shell등 세계 유수의 에너지기업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韓國의 油公에서 세계의 油公으로 준비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

▼油公 코끼리 축구단의 경기 모습

